

제6강

마음의 풍경 : 神明畵圖

1. 도설의 전통과 심성도설

1) 도(圖)와 도설(圖說)

가장 간명한 그림 형식을 통해 변쇄한 이론의 핵심을 제시하고, 그 근원적 의미를 밝히며, 학문의 요체를 일목요연하게 가시화시키는 기능.

2) 중국의 도설

- 하도(河圖) · 낙서(洛書) / - 도가의 태극도(太極圖)와 연단도(練丹圖)
- 주돈이(朱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 소옹(邵雍)의 육십사괘방위도(六十四卦方位圖), 경세연역도(經世衍易圖), 주희의 역학계몽(易學啓蒙)에 여러 도(圖).
- 정복심(程復心)의 심학도설(心學圖說).

3) 한국의 도설

- 의상(義湘)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670년)와 다수의 법계도기(法界圖記)
- 권근(權近, 1352~1409)의 입학도설(入學圖說, 1390)
-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의 천명도설(天命圖說)
- 이황(李滉, 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 1568)
- 조식(曹植, 1501~1572)의神明사도(神明舍圖)와 학기도(學記圖)
- 이이(李珥, 1536~1584)의 심성정도(心性情圖)와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
-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퇴율심성정도(退栗心性情圖)와 미발기질변도설(未發氣質辨圖說) / 정제두(鄭齊斗)의 양지도(良知圖).

4) 성리학의 발전과 심성도설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 조식의 학기유편(學記類編)이 가장 중요한 저술.

이 저술이 나온 후 조선 성리학은 전체적인 체계를 확립 →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진전.

도설을 통한 담론 방식이 조선 성리학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

□ 심성도(心性圖): 심성론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도상

심성도설(心性圖說): 심성도에 도상학적 설명을 보탠 것

□ 대표적 심성도설

권근: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천인심성분석도(天人心性分釋圖)

이황: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인설도(仁說圖), 심학도(心學圖), 경재잠도(敬齋箴圖),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

조식: 심통성정도 · 임은정씨복심역유일도(心統性情圖 · 林隱程氏復心亦有一圖), 천도도(天道圖), 천명도(天命圖), 인설도(仁說圖), 충서일관도(忠恕一貫圖), 경도(敬圖), 성도(誠圖), 성현론심지요도(聖賢論心之要圖), 부동심도(不動心圖), 심위엄사도(心爲嚴師圖), 기도(幾圖) → 이들을 종합하여 응축한 신명사도(神明舍圖)

이이: 심성정도(心性情圖),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

2. 신명사도의 도상학적 의미

1) 신명사도의 중요성

- ❶ 심성우언소설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
- ❷ 추상적인 도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여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이미지화하는데 성공한 거의 유일한 도상
- ❸ 조식 자신과 종래 성리학자들의 세부적인 심성 논의를 한 장의 도면으로 응축

2) 신명사도 해석 방법

- ❶ 신명사명(神明舍銘), ❷ 학기도(學記圖), ❸ 신명사도명(神明舍圖銘)

3) 신명사의 의미

신명사(神明舍) = 마음

心者, 神明之舍, 爲一身之主宰 - 주희

天地神明 → 人之神明

神明: 지극히 신령스럽고도 분명한 생명의 작용

지극하고도 완벽한 생명의 공능(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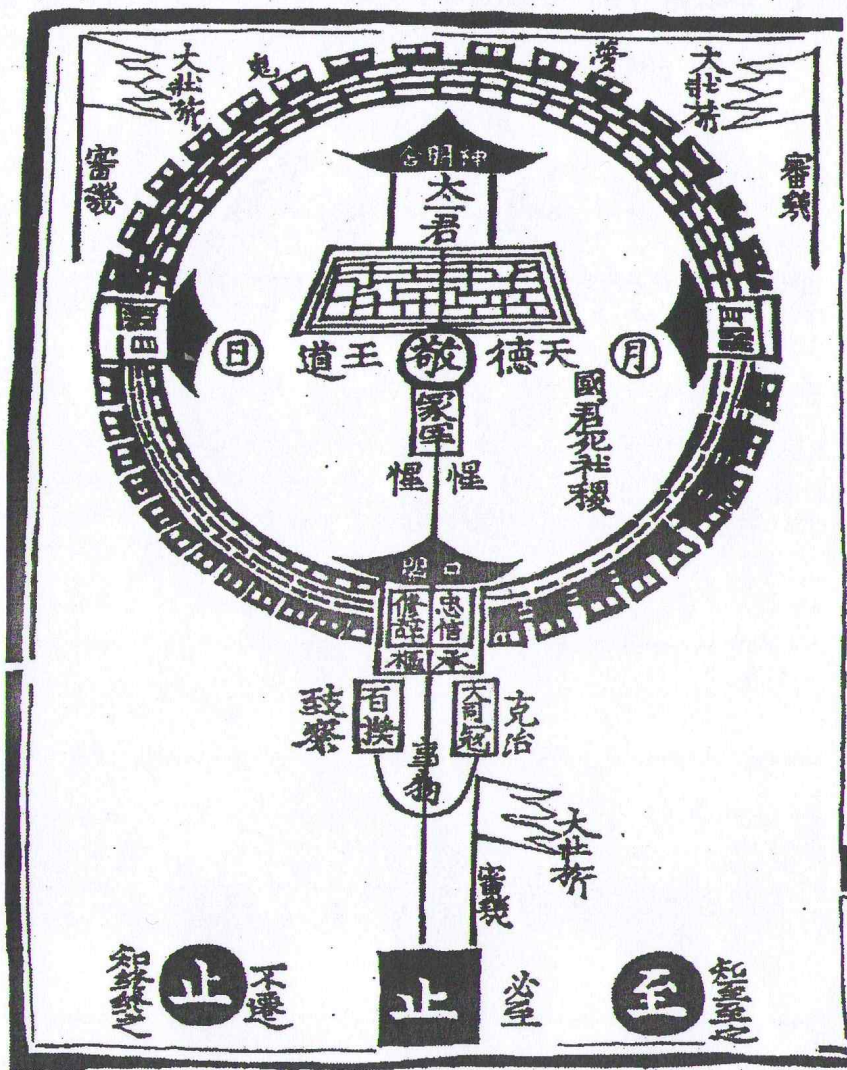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또 써야 하는가?’

‘인간이 어떠한 마음씨를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 씀으로 살아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성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가?’

신명사도의 주제: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을 바르게 존양(存養)하고 또 그것을 정(情)으로 바르게 발현하는 것

4) 전체적인 모양

- ① 마음의 전체적인 풍경은 성벽을 경계로 하여 안팎으로 나뉨
- ② 성벽의 안쪽: 건물 한 채가 있고, 태일군(太一君)이 거처, 경(敬)이 총재(冢宰)로서 만기(萬機)를 주재함.
- ③ 성벽: 이목구(耳目口)의 관문이 동, 서, 남쪽으로 안팎을 매개. 세 관문의 밖: 대장기(大壯旂)가 기미에 따라 펄럭임
- ④ 의(義)를 의미하는 대사구(大司寇)와 백규(百揆)가 사물의 정(情)을 다스리거나 살핌.
- ⑤ 이를 통해 이를 곳을 알아 이르고(知至至之) 마칠 곳을 알아 마치면 서(知終終之), 지어지선(至於至善)의 상태에 머무름.



5) 성벽의 안쪽

① **태재 경**이 태일군을 대신하여 총재의 역할을 담당. ✓ **총재**는 원래 군왕이 삼년상을 마치는 동안 군왕을 대신해서 섭정하는 재상.

→ **태일군**은 상징적인 ‘마음의 군왕(天君)’ 일 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아니다. ‘태일’은 ‘마음의 본체’를 의미하며 역에서 말하는 태극과 같은 것.

② **敬** 옆에 **천덕(天德)**과 **왕도(王道)**: 천덕은 대학(大學)에 등장하는 ‘명명덕(明明德)’의 대상. 왕도는 ‘신민(新民)’을 의미. 경은 명덕과 신민의 요체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 명덕과 왕도를 경의 양쪽에 배치.

③ 더 바깥쪽에 **해(日)**와 **달(月)**: 해와 달은 천지신명을 주재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명을 주재하는 경의 광휘가 되기 때문에 제시.

④ <신명사명> “총재는 왕을 대신하여 안에서 주재한다(內冢宰主).” 주역 곤괘 “경으로 안을 바르게 한다(敬以直內)” 는 말에서 유래, “의로 밖을 반듯하게 한다(義以方外)” 는 말에 대비.

⑤ 그 아래 **성성(惺惺)**: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主一無適) 늘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 로, 경의 의미. ‘성성자(惺惺子)’ 라는 방울.

⑥ **국군사사직(國君死社稷)**: “나라의 군주가 사직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나라를 보존하기에 부족하고, 학자가 도에 죽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그 마음을 보존하기에 부족하다”

6) 관문

성벽의 안팎을 연결하는 눈, 귀, 입의 관(關). 각 관문 앞에는 기미 판단

의 척도가 되는 깃발이 펄럭이는데 그 이름이 **대장기(大壯旂)**. 이것은 주역(周易) 대장괘(大壯卦)의 상을 설명하는 말, “우레가 하늘에 있는 것이 대장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雷在天上, 大壯, 君子以, 非禮不履).” 에서 유래.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는 각 관문에서 예가 아니면(非禮) 듣지 않고(勿聽), 보지 않고(勿視), 말하지 않는(勿言)다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의미. 강한 것으로는 ‘자기를 이기는 것(克己)’ 보다 강한 것이 없으므로 ‘대장(大壯)’ 이라는 말을 사용. 물(勿)자가 ‘깃발의 끝 모양과 닮았기 때문에 이를 깃발로 표시한 것’ 이라 함. 세 개의 관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입의 관문(口關). 구관에서는 충과 믿음으로 말을 다스리고, 안으로 왕명을 이어 추기(樞機)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표현

7) 성벽의 바깥

성벽의 바깥쪽에서는 의(義)를 뜻하는 백규(百揆)와 대사구(大司寇)가 사물의 정을 ‘극진히 살피거나(致察)’ ‘능히 다스리는(克治)’ 모습을 보여줌.

성 북쪽 바깥 면의 사각 지역에는 귀(鬼)와 몽(夢)이 자리 잡고 있음. 귀는 ‘사람(人)’에 상반되는 것으로 사람답지 않은 행실을 말하며, 몽은 ‘각(覺)’에 상반되는 것으로 밝지 않고 혼란스러운 행실을 말한다.

8) 결론

① 내면 미발의 성을 경을 통해 함양(敬以直內)하고 외면 기발의 정을 의를 통해 구현(義以方外)할 수 있으면 이르러야할 곳을 알아 그곳에 이를 수 있고 끝내야할 곳을 알아 그곳에서 끝낼 수 있게 되어서, 인간이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아래쪽에 큰 글자들로 표시.

② 성의 안쪽에서는 ‘경’ 이, 바깥쪽에서는 ‘의’ 가 가장 증시되었으며, ‘성(誠)’ 이 중간에서 이 둘을 매개하고 있는 형상을 보여줌.

인간 내면의 선천적인 생명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성을 외면의 정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성을 함양하는 문제, 외부적으로는 정을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꺼리가 됨.

3. 신명사도와 천군소설, 심성우언소설

신명사도의 영향을 받아, 김우옹(金宇顒)이 <천군전(天君傳)>을 창작(1566)한 이래로 <수성지(愁城誌)>, <천군연의(天君演義)>, <천군본기(天君本紀)>등을 비롯한 다수의 심성우언소설들이 산출.

심성도설과 천군소설

1. 天君小說의 구조와 의미

1) 천군소설

① 天君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마음의 건강을 사건과 주제로 하여, ‘건강한 마음의 나라가 이룩되기까지의 곡절’ 을 다루고 있는 일련의 소설들.

② 東岡 金宇顥(1540-1603) <天君傳>

白湖 林悌(1549-1587) <愁城誌>

東溟 黃中允(1577-1648) <天君紀>

菊堂 鄭泰齊(1621-1669) <天君演義>

滄溪 林泳(1649-1696) <義勝記>

文無子 李鈺(1760-1807) <南靈傳>

歇五齋 鄭琦和(1786-1827) <天君本紀>

小隱 柳致球(1793-1854) <天君實錄>등

③ 작자가 명확, 저작시기도 비교적 확연, (많은 작품들이) 문집에 수록.

우리 소설사에서 특별한 위상.

중국과 일본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문학유형,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을 잘 반영.

2) 인물 형상

(1) 천군

많은 천군소설들이 등장인물 天君을 제목으로

- ① 선대인물: 乾元帝(天君傳), 人皇氏(天君演義), 沖漠君(天君本紀) 등
- ② 고향: 乾(天君傳), 鬲縣(愁城誌, 天君演義, 南靈傳, 天君實錄)
- ③ 천군의 나라이름: 有人國(天君傳)과 夏(天君本紀)
- ④ 도읍지: 胸海(天君傳), 丹府(天君演義), 齊州(天君本紀), 天府(天君實錄)
- ⑤ 본명: 理, 心(이상 天君傳), 朱明(天君演義), 心(義勝記), 周泰然(天君本紀), 丹元(天君實錄)
- ⑥ 연호: 太初(天君傳, 天君演義, 天君實錄), 降衷(愁城誌), 中和(天君本

紀).

천군소설의 최초작품인 <天君傳>에서 천군은 하늘에서 하강한 인물,
천군소설의 마지막 작품인 <天君實錄>에서는 인간 중에서 유능한 인재
가 천군으로 즉위 → 심성을 보는 세계관 변화

(2) 심성의 건강을 해치는 인물들

① 내부의 적들

- 천군의 신하이면서 외부의 적들인 ‘마음의 병’ 을 끌어들이م.

게으름(懈)과 거만함(傲)

문장놀이에 매몰됨(文藝, 陶泓, 毛穎, 陳玄, 楮知白)

情과 욕에 휘말림(七情, 慾)

사사로운 마음과 이로움을 탐냄(禾么, 禾刀, 意·必·固·我, 貪)

화려한 음악과 부귀(聲·色·煖, 博·富·貴, 寶)

분노(忿聲, 怒) 모짐(毒) 급함(躁) 좁음(褊), 시기(伎)에 해당하는 마음

② 외부의 적들

- 내부의 적들과 내통하여 마음의 나라에 침범하는 ‘마음의 병’
- 愁心과 憂心 (憂는 喪과 같은 의미 → 喪心)
- 충신열사의 한(龍逢, 比干, 紀信, 諸葛亮등과 같은 忠臣烈士)
- 장렬하게 죽은 壯烈志士의 한(荊軻, 伍子胥, 楚霸王, 孫策, 李陵과 같은 壯烈門 안의 壯烈志士)
- 무고하게 죽은 못 생명들의 한(長平의 趙卒, 新安의 秦卒등 無辜門 안에 있는 冤情을 품은 이들)

- 생이별한 사람의 아픈 마음(王昭君, 蘇武, 長信宮의 여인들 등과 같은 離別門 안의 사람들)
- 여색(越伯과 女戎)
- 술(歡伯, 麴氏兄弟, 麴襄, 麴醇)
- 喪心은 인간의 본 마음을 빼앗긴 상태 →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의미로 華督, 柳跖, 盜賊, 群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 <愁城誌>에서는 ‘마음의 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屈原을 제시

※ 심성의 건강을 해치는 인물들은 性, 情중 정에 해당하는 인물들
정을 표상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과불급이 있었음이 문제가 되고 있음

(3) 심성의 건강을 회복하는 인물들

① 敬을 의인화한 인물

인간을 주재하는 노인(主人翁): 戰戰兢兢하고 如履薄氷하며 存心하는 태도를 천군에게 깨우치는 인물(<愁城誌>, <天君演義>, <天君實錄>)

집중하는 노인(主一翁)

깨어있는 정신(惺惺翁, 惺翁, 惺惺子)

- 혼미해진 천군을 깨우쳐 주면서, 작품전개에 주도적인 역할

② 百揆 義 · 秋官 義

경은 內政을 총괄하(敬以直內)고 의는 外政을 총괄
<천군전>, <수성지>, <천군실록>에 등장.

③ 誠意伯, 公子 志, 志帥

性이 情으로 표현될 때, 희노애락의 중용태는 바로 誠을 통해서 구현

④ 淳善의 의인인 淳于善, ‘인정이 절차에 맞음’ 을 의미하는 田知節, 信이 의인화된 인물로 惻隱之司, 羞惡之司, 辭讓之司, 是非之司를 다스리는 사람인 信臣, 흠어진 마음을 거두는 것으로 收放心의 의인화인 收父, 후회하는 마음을 의인화한 有悔氏,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마음을 의인화한 孟浩然, 떳떳한 마음을 뜻하는 彝 등

⑤ 麴襄將軍과 南靈將軍

무형물 의인화 → 유형물 의인화

무형의 마음 뿐 아니라, 유형의 외물에 의해서도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여타의 천군소설들이 유형의 외물들을 단지 외부의 적들로 취급한 것과

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 과불급을 치료: 정으로 정을 물리침.

3) 서사구조

(1) 심성이 병드는 방식

- 희로애락의 감정[情]이 치우치게 나타나 敬으로 中을 함양하는 데 게을러지고, 천리의 公義로써 和를 구현하기보다 인욕의 私利로써 和를 깨트리기 때문.

① 敬의 축출

② 호감(喜樂)과 오감(哀怒)에 함몰

(2) 심성이 치료되는 방식

- ① 敬의 귀환
- ② 감정의 과불급 해소

(3) 심성의 건강과 주제의식의 향방

- ① 心統性情論
- ② 性은 인간이 구현할 우주적 근원의 에너지, 情은 외적 자극에 대한 그 에너지의 구체적 경험적 발현, 心이란 이 과정, 즉 잠재적 형태의 에너지(性)가 구체화(情)이 되는 조건을 결정하고 방식을 유도하는 정신신체적 구조

③ 이때 그 정신신체적 구조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性을 내면적으로 곧게 기르는 태도인 敬(敬以直內)과 情으로 밖에 표현되었을 때 이를 바르게 성찰하는 義(義以方外)가 중시

④ 성이 정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경과 의를 통해 심성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심통성정의 심성론적 주제의식과 합치.

2 . 심성도설과 심성우언소설의 거리

1) 공통점

① 마음의 풍경이 살벌한 전쟁터로 나타난다는 점

- (적의 사악한) 낯새가 있자마자 즉시 나아가 시살토록 한다(動微勇克, 進教廝殺).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가 걸린 전쟁터이다. 여기에는 칼을 숭상하는 尙武적 기풍

- 모든 심성우언소설들 속에는 전쟁터의 풍경(心城)이 나타남 → 마음의 천하를 두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이면서 피 흘리며 처절하게 결사항전하는 전쟁 장면들이 생생하게 형상화.

-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이나 요행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음.

② 敬과 義의 실천적 역할 중시

- (天君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경과 의에 의해 이루어짐

③ 인간의 감정 에너지, 즉 정(희로애락)을 잘 처리하여 마음의 건강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함

④ 물질화된 상상력을 발휘

- 불가시적이면서 추상적인 마음이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을 확보하여 물질화 ➔ 구체적인 형상화를 추구

2) 차이점

① 시간을 중시하는 서사성

- 심성도설은 시각을 매체로 하여 공간적인 표현을 지향하는 반면 심성우연소설은 시간적 변이에 따른 서사적인 표현을 지향

- 紀傳體나 編年體를 모델로 하여 < 원형 - 타락 - 회복 > < 득병 - 치유 - 회복 >의 시간적 과정

② 마음 이외의 도구 발견

<수성지>, <南靈傳>에서는 마음의 기체가 아닌 술(麴襄將軍)이나 담배(南靈將軍)와 같은 외물로 마음의 질병을 치유

③ 흥미성과 풍자성의 발견과 추구

심성도설은 교훈성과 실천성을 중시하지만, 심성우연소설은 이 두 가지

를 중시하면서도 한편으로 흥미성을 아울러 추구.

특히 전쟁화소와 애정화소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심성도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흥미를 유발.

④ 의인기법의 심화 발전

조식의 신명사도를 제외하면 의인의 기법을 활용한 심성도설을 찾아볼 수 없음.

신명사도의 경우에도, 태일군, 총재, 대사구와 같은 직책으로 표현하고 있어 온전한 의인화라고 보기 어려움.

의인화 기법이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심성도설에 비하여, 심성우언 소설들의 의인화는 본격적이며 전면적으로 활용.

3. 마무리

성리학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심성의 문제**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심성적 존재**

심성적 존재인 인간은 내부적으로 본래적인 생명에너지(性)를 타고나는데 이를 잘 존양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중용에 맞게 **情**을 느끼고 표현해야만 하는 숙명을 지닌 존재.

그러므로 안으로 본래적인 생명에너지를 잘 함양하고 밖으로 **감정 교류와 처리의 달인**이 될 때 인간은 구원에 이르게 되며, 그러하지 못할 때 타락하게 됨. 경우에 따라 심성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기도 하고 구원으로 이끌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